

2022년 9월 4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조은석 목사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From Him comes my salvation.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n, my Fortress.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시편 Psalm 62:1-2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첫째 주일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사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극에 달하도록
피곤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한결같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5-6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Acts 13: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Of this man's offspring, God has brought to Israel a Savior, Jesus, as he promised.

사도행전 Acts 13:23

신약의 첫 번째 선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Matthew 1:1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인물들 나열입니다.

인간적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에서 실시한 그의 소아시아 첫 번째 설교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은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실 때, 예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매오(Bartimaeus)가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And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cry out and say,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마가복음 Mark 10:48

이 타이틀은 그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역사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라고 당신 스스로 칭하신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23a.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3b

이 사람의 후손에서

23c

이스라엘을 위하여

23d

구주를 세우셨으니

23e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23.

23a

Of this man's offspring

이 사람,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것은 다윗보다 열등하신 분을 말함이 아닙니다. 사실 육신으로도 영으로도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셀 수 없이 많이 “메시야”께서 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from the words of my groaning?
시편 Psalm 22:1

시편 22편, 그 중에서도 특히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정황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함입니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시편 Psalm 23:18

시편 22편 외에 수많은 “메시야 시편”이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에 주로 그려진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어린양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23b

God has brought to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본래 유랑하던 아람사람이었던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을 조상으로 가진 이스라엘은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을 때, 광야에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셨을 때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고 보잘 것이 없으며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3c

a Savior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시편 Psalm 23:4

23d

Jesus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가난과 억압이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땅에서,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놀랍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23e
as He promised.

그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성경말씀이 거룩하고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빈 말”이거나 “거짓 말”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한 그대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선포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 두 조상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은 예리고에서 맹인 바디매오가 선포한 것입니다. 아울러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금문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써 연결된 후파교회와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원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을 양육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성도의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